

‘아이를 찾습니다’ PD “박혁권·장소연 연기 보는 맛 날 것”

JTBC 드라마페스타 2부작 드라마

김영하 작가 동명 단편소설 원작

박혁권 “남주기에 아까운 작품이다”

장소연 “실화처럼 공감... 밀도있어”

배우 박혁권과 장소연이 11년 만에 아이를 되찾은 부부의 삶에 아이러니를 그린 ‘아이를 찾습니다’로 안방극장을 찾았다.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드라마페스타 ‘아이를 찾습니다’ 제작발표회에는 연출을 맡은 조용원 PD와 배우 박혁권, 장소연이 참석했다.

‘아이를 찾습니다’는 잃어버린 아이를 11년 만에 되찾은 부부가 겪는 삶의 아이러니를 그린 드라마로, 베스트셀러 작가 김영하의 소설이 원작이다.

대형마트에서 3살 배기 아들 성민이를 잃어버린 부부는 이후 11년이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제쳐두고 아이를 찾는다. 이후 두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대가 된 아들이 돌아온다. 아이만 돌아오면 모든 게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을 품고 살아가던 이들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박혁권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조윤석’ 역을 연기한다. 그는 “대본을 보니 배우들이 좋아하는 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대본을 보고 ‘남주기에 아깝다’는 생각에 제가 했으면 좋겠다 싶어 하게 됐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의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려 했다. 박혁권은 “이 작품은 말한 마디를 해도 진실되게 표현하는데 중

점을 뒀다”며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를 세분화시키고 견어내면서 본질을 남기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엄마 ‘강미라’ 역은 장소연이 맡았다. 아들을 잃어버리던 날, 임허주지 못했던 카디건이 가슴에 대듯처럼 박혀버렸고, 그 좌절감을 뇌를 잠식하고 모든 것을 망가트렸다.

장소연은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실화인가 싶었다. 공감이 됐고 누군가의 사건이 잘 느껴졌다. 진짜 일어난 일인가 찾아보니까 원작이 있는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의 욕망이나 범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가 다시 돌아오지만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며 “원치 않는 피해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불쌍하려고 하는 희망이 담겨 있다. 공감되는 작품이어서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막극은 처음이다. 드라마인데 영화같은 작품이었다. 대본을 읽으면서 (감정이) 북받쳐서 지문을 다 못 읽겠다. 작품에 밀도가 있다”며 “길에서 아이를 찾는 현수막을 볼 수 있지 않

나. 제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식을 위한 그 절박함이나 간절함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신이든 그 부분은 꼭 잡고 가려고 했다”고 전했다.

‘아이를 찾습니다’를 연출한 조용원 PD는 “두 분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드라마를 보면 연기 보는 맛이 난다는 기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윤석 캐릭터는 신마다 감정이 복잡했고, 전형적인 아버지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박혁권 배우가 흔쾌히 해준다고 해서 좋았다”며 “미라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긴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내야 했는데, 장소연 배우가 빠르게 답해줘서 기뻐했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조 PD의 데뷔작이다. 그는 “너무 떨린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박혁권, 장소연 두 배우를 비롯해 함께 해주신 배우들과 작가님, 스태프들이 잘 채워줘서 작품이 잘 완성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PD는 “김영하 작가님의 단편소설이 원작인데, 소설을 읽고 드라마로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아이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찾은 이후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점이 흥미로웠다. 또 소설 속 그분들의 이야기가 지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윤석 가족의 비극을 최대한 담담하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에 드라마화하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상 할 수 없었고 3년 뒤인 지난해 다시 생각이 나서 시도

했다. 이 작품은 저한테 올 운명이었다”며 “원작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싶었고, 인물들의 서사나 관계를 더 보여주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페스타’는 JTBC의 단막극 브랜드 이름이다. ‘아이를 찾습니다’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에 이어 JTBC 드라마페스타 올해 두 번째 작품으로 22일과 23일 양일간 오후 9시에 방송됐다.

‘동상이몽2’ 전진·앤디 “신화 갈등, 솔직히 무서웠다”

최근 제기된 그룹 내 불화설 언급하며 눈물 흘려

그룹 신화의 전진과 앤디가 최근 제기된 그룹 내 불화설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TV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 예고편 말미에는 전진, 류이서 부부가 황보, 심은진, 앤디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전진은 “오늘 모인 이유가 은진 이 결혼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심은진은 “이 친구는 조금 특별하

다. 나한테 결혼을 생각하게 했다. 그 전에 상황이 좀 있었지만, 인연이 되는 사람은 딱 알아본다는 게 이 느낌이나 싫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앤디는 “멤버 6명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다”며 신화의 에릭과 김동완의 갈등을 이야기했다.

전진은 “조심해야 할 건 당연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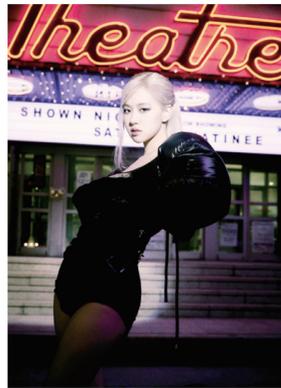
있지만, 우리 멤버들은 안 그럴 건데 왜 자꾸 걱정을 하지?”라고 울컥했다. 이에 앤디도 “솔직히 무서웠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지난 14일 에릭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팀을 우선해 일을 진행한 사람과 개인 활동에 비중을 두고 그것을 신화로 투입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김동완을 지적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불화설이 제기됐다.

이후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봉합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로제,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K팝 솔로 최초

빌보드 ‘핫 100’ 70위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K팝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 정상을 밟았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도 한국 여자 솔로 가수 최고 순위인 70위에 이름을 올렸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데이터를 집계한 두 개의 주요 차

트 순위를 공개했다.

공개된 차트는 ‘빌보드 글로벌 200(Billboard Global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이다.

두 차트에서 로제의 ‘온 더 그라운드(On The Ground)’가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서브타이틀곡 ‘곤(Gone)’도 각각 29위, 17위에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 글로벌 200’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200여 지역에서 수집된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다운로드)을 토대로 가장 인기있는 노래 순위를 매긴다.

미국 빌보드가 대중음악 시장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만든 기준으로 글로벌 메인 차트 중 하나로 새롭게 자리매김 중이다.

또 ‘온 더 그라운드’는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70위에 올랐다고 빌보드가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는 한국 여자 솔로 최고 순위이다. 지난 2016년 그룹 ‘투에니원(2NE1)’ 출신 씨엘(CL)이 ‘리프트드(Lifted)’로 94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 12일 데뷔 첫 솔로 앨범을 발

표한 로제는 미국 빌보드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차트에서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온 더 그라운드’는 발매 첫날 미국을 비롯해 총 51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정상을 밟았으며, 글로벌 유튜브 송 차트(12일~18일 집계)와 뮤직비디오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50 차트에서는 8위로 진입한 뒤 톱10에 안착했다.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톱100(Official Singles Chart Top 100)에서도 43위에 올랐다.

이 밖에 ‘온 더 그라운드’ 뮤직비디오는 지난 20일 1억뷰를 돌파했다. 유튜브에 공개된지 약 1주일 만에 거둔 성과다. 1억뷰를 달성한 한국 여성 솔로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중 최단 기간이었다.

음반 부문도 주목받고 있다. 선주문량 50만 장에 달했던 로제의 솔로 앨범 ‘R’은 지난 16일 출시되자마자 하루 만에 28만장 이상 판매돼 이날 발표되는 최종 초동 기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S, 방탄소년단 단독 토크쇼 ‘렛츠 BTS’ 29일 방송

밤 10시40분부터...100분 편성 확정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독 토크쇼 ‘렛츠 BTS’(Let’s

BTS)가 100분 편성을 확정했다. KBS 2TV는 “스페셜 단독 토크쇼 ‘렛츠 BTS’가 오는 29일 오후 10시40

분부터 100분 동안 방송된다”고 23일 밝혔다.

방송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데뷔 후 지금까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하는 VCR 영상 등이 담긴다.

사전에 이뤄진 국민 참여를 통한 무대도 있다.

제작진은 “무대에서는 카리스마를 뽐내던 그들이 토크쇼에서는 다소 긴장한 의외의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그들만의 유쾌함과 솔직함이 돋보이는 토크를 선사했다”고 말했다.

신동엽의 단독 진행으로 이뤄지며, 개그우먼 장도연이 특별 MC로 함께 한다.

변요한 “아이유 팔레트 출연, 홍보 요청된 것 같다”

아이유 공식 유튜브 채널 ‘이지금 IU Official’ 첫 배우 게스트로 출연해 영화 홍보



영화 ‘자산어보’의 주역 변요한이 아이유와 만난 소감을 전했다. 변요한은 지난 19일 아이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지금 IU Official’의 ‘아이유의 팔레트’에 첫 배우 게스트로 출연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23일 화상으로 만난 변요한은 “영화를 찍고 나서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아이유의 팔레트’ 콘텐츠와 여러모로 잘 맞았다”며 “또 반갑게 초대를 해주셔서 즐겁게 촬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조금의 부끄러움이 있어서 모르는 분들과 작품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번 작품을 만나며 홍보 요청으로 발돋움한 것 같다”고 웃었다.

앞서 변요한은 팔레트에 출연해서도 “‘자산어보’라는 훌륭한 작품을 만나게 됐다. 이번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나오게 됐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이어 “흑백 영화는 주변에 색채감이

없어 오로지 배우의 눈과 목소리와 형태로만 관객들에게 집중을 시키는 만큼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만큼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이다”고 ‘자산어보’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이에 아이유는 사전 인터뷰 당시 변요한이 “영화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싶다”라고 거듭 강조한 비하인드를 전하며, 인터뷰 당시 멘트와 달리 촬영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변요한의 모습을 밝혀 소소한 재미를 자아냈다.

‘자산어보’는 흑산으로 유배된 후, 책보다 바다가 궁궐해진 학자 정약전과 바다를 벗어나 출세길에 오르고 싶은 청년 어부 창대가 자산어보를 집필하며 벗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31일 개봉한다.

아이유, ‘유명가수전’ 첫 게스트 출연...TOP3와 만난다

내달 9일 오후 9시 방송

가수 아이유가 ‘유명가수전’에서 ‘싱어게인’ TOP3와 만난다.

22일 JTBC에 따르면 새 예능 ‘유명가수전’에 TOP3와 만나게 될 첫 번째 유명 가수로 아이유가 확정됐다.

‘유명가수전’은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을 통해 ‘갓 유명가수’가 된 TOP3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이 아티스트 ‘유명가(家)’에서 대한민국 레전드 가수

들을 만나 음악 이야기를 펼치는 프로 그래프다.

이미 티저 영상에서 아이유를 비롯한 신선의 가수들이 거론되며 유명가수 정체를 둘러싸고 궁금증이 높아졌다.

‘유명가수전’을 통해 아이유의 깊은 음악 이야기뿐만 아니라 TOP3와 함께 하는 역대급 콜라베이션 무대까지 만나볼 수 있다.

또 아이유가 오는 25일 4년 만에 선

보이는 정규 앨범 ‘라일락(LILAC)’에 관한 이야기도 내놓 것으로 보인다.

또 ‘싱어게인’에서 매회 다량하고 신선의 편곡으로 최고의 무대를 보여줬던 TOP3가 아이유가 뽑은 본인의 ‘인생곡’을 재해석한 무대도 선사한다.

아이유와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의 음악 그리고 이야기는 4월9일 오후 9시에 볼 수 있다.

뉴시스

서예지·김강우 스릴러 ‘내일의 기억’

내달 8일 개봉

배우 서예지와 김강우가 스릴러 영화로 만났다. 영화 ‘내일의 기억’(서유민 감독) 측은 4월8일 개봉 확정 소식과 함께 1차 포스터를 23일 공개했다.

‘내일의 기억’은 기억을 잃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수진’(서예지)이 혼란스러운 기억의 퍼즐을 맞춰갈수록 남편 ‘지훈’(김강우)의 충격적인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어느 날 사고 이후 펼쳐진 타인의 미래,

그 미래 속 가족의 모습이 살인자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재에서 시작한다.

1차 포스터는 서예지와 김강우의 대립각을 예고한다. ‘내가 본 내일, 당신은 살인자였다’라는 카피는 예정된 미래 속 남편이 살인자라는 설정을 보여주며 스릴러 마니아들의 기대감을 높인다. 영화 ‘떡볶이집’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극적인 하룻밤’ ‘행복’ 등의 각색과 각본을 맡은 스토리텔러 서유민 감독의 첫 작품이다.

